

학비노조 파업...광주·전남 급식 차질 현실화

〈학교비정규직노조〉



“차별 철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29일 광주시교육청 광장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임단협 승리, 급속수당 5만원 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급식 대신 도시락 광주 광산구 선창초 학생들이 29일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다. 광주·전남 초·중·고교는 이날 급식조리원 등의 파업으로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 비상 급식 대책을 마련해 실시했다. /김진수기자 jeans@

도시락 지참·단축수업 등 219개교 비상급식 운영 일부 학교 가정통신문 보내 학부모 양해 구하기도

급식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노조원들이 29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우유로 점심을 대신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27개교 중 110개교가 비상 급식 대책

을 마련, 운영했다. 건국초 등 58개 초·중·고교에서는 점심 시간, 학생들이 지참해온 도시락을 먹는 이색 장면이 연출됐고 광주남초와 문흥초 등 44개 학교에서는 빵·우유가 제공됐다. 각화초는 도시락을 싸온 모든 학생들에게 빵·우유를 추가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봉산초 등 7개교는 단축수업을 진행했

다. 전남지역에서는 758개 초·중·고교 중 240개교(31.7%)에서 비상 급식이 운영됐다. 목포제일여고 등 109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고 보성 다향고 등 42개교는 빵·우유를 제공해 급식을 대신했다. 벌교중 등 63개교는 단축수업을, 26개교는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파업 소식이 알려지는데, 학교측도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혼란없이 지나갔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학교측이 보낸 “불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도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비노조 파업에도 30일에는 정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86%로 29일(68.3%)보다 많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초등 지필고사 내년 폐지...학생 창의성 키울것”

독서토론 열차학교 ‘통일열차’로...외교·자사고 폐지 반대

장만채 교육감 직선 2기3주년

내년부터 전남지역 모든 초등학생은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대신, 학습과제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지난해 일제고사식 지필평가 폐지 이후 학교별로 진행되던 지필고사도 없애기로 한 것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29일 전남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직선 2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초등학교별로 치러지던 지필고사를 없애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찾아오는 전남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한편, 성과를 분석한 뒤 중학교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장 교육감 구상이다. 지필고사 대신, 학생 참

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확산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독서·토론 교육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진행중인 핵심 사업인 독서토론 열차학교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까지 무대를 넓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내년에는 학생들이 열차를 타고 목포에서 신의주를 거치는 ‘통일열차’가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즉흥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추진은 안 된다는 것으로, “학교가 설립 목적이나 학교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폐지를 추진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와 관련,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완성된다면 교육감 선거는 없어지게 된다”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순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흥 토요일시장

순천대학로골목

광주 남구 통기타거리

장흥군의 토요일시장과 순천대학로골목, 광주남구 통기타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선정...전국 9곳 45억 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야시장 및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야시장 4곳과 골목 상권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야시장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연계해

매주 금·토요일 저녁때마다 시장을 찾은 시민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3년 10월 부산 부평강동야시장을 시작으로 현재 9개 야시장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엔 최종 선정된 9개 야시

장 및 골목상권에 총 45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야시장과 골목상권은 사업 성격에 맞는 상인 교육, 매대 제작, 상권 재구조화, 시설개선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문을 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해질 19:15 달뜨기 11:46 달지기 --:--

지각 장마 남해안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22/29	보성	비	20/24	
목포	22/26	순천	차차흐려져비	21/26	
여수	비	21/25	영광	차차흐려져비	21/28
나주	차차흐려져비	21/28	진도	비	22/25
완도	비	21/25	전주	차차흐려져비	22/29
구례	차차흐려져비	20/28	군산	차차흐려져비	21/29
강진	비	21/26	남원	차차흐려져비	21/29
해남	비	21/27	홍산도	차차흐려져비	19/25
장성	차차흐려져비	20/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안바다	북~북동	0.5	남~남서	0.5	0.5
남바다	북~북동	0.5~1.5	남~남서	0.5~1.5	0.5~1.5
안바다	남~남서	0.5	남~남서	0.5~1.0	0.5~1.0
남해 서부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1.0~1.5
남해 동부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1.0~2.0

◇생활지수

- 식중독 경고
- 자외선 높음
- 피부질환 높음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04	06:54
	--:--	19:11
여수	간조	만조
	07:35	01:26
	19:50	13:56

◇주간 날씨

7/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	☁	☁	☁	☁	☁	☁
23/30	23/30	23/29	24/29	24/30	24/30	24/30

“모기 조심하세요” 일본뇌염 경보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감시결과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29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 부산지역에서 6월 23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하루 평균 채집 개체수는 531마리로 전체 모기의 72%를 차지했다. 올해 경보발령은 작년(7월 11일)보다 약 2주 정도 이르다. 6월에 경보가 발령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이다. 모든 매개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리더라도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 매개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4·16 연대 “朴정부 세월호 은폐 조사해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조사 방해·은폐 등 사례를 문재인 정부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비망록 등 수첩의 내용과 언론 보도 사례, 언론에 공개된 해양수산부 문건, 어버이연합 회계장부 등을 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조사방해 사례를 열거한 자료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기관·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왜곡했으며, 이와 같은 공작정치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도 강제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비망록 등 수첩의 내용과 언론 보도 사례, 언론에 공개된 해양수산부 문건, 어버이연합 회계장부 등을 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조사방해 사례를 열거한 자료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기관·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